ifez
Incheon Free Economic Zone

INCHEON FREE ECONOMIC ZONE

# GLOBAL BUSINESS INNOVATION HUB

IFEZ

IFEZ JOURNAL [KOR] 2026 11+12 VOL.132

# ifez Journal



KOR

이번 호 표지
G-타워

Vol.132 2026 11 + 12

IFEZ JOURNAL
웹진 바로가기
www.ifez.go.kr/journal

ifez Journal
IFEZ BIMONTHLY MAGAZINE
2026. 11+12 Vol. 132

**발행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발행일**
2026년 11월 1일
**발행호**
통권 제132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54-6280548-000013-07
**담당부서**
미디어문화과
**기획·디자인**
웨스트코㈜

IFEZ JOURNAL
웹진 바로가기
www.ifez.go.kr/journal




**Cover story**
세계와 연결되는 글로벌 도시의 중심, G-타워.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준비하는 IFEZ가
더 큰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 CONTENTS



## BUSINESS

**04 SPOTLIGHT**
제9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취임

**06 SPECIAL THEME**
THE NEXT BIO

**10 ISSUE**
도시는 역동적으로,
일상은 풍성하게

**12 6-CORE**
IFEZ GLOBAL CORE
Fifth. 투자를 움직이는 도시의 힘

**14 IFEZ NEWS**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IFEZ의 활동



## WITH US

**20 SPECIAL INTERVIEW**
IFEZ 내 글로벌기업을 만나다
<지니지>

**24 INSIDE**
도시의 가치를 발견하고
IFEZ의 매력을 세상에 알리다
<미디어문화과 홍보팀>

**28 NOTICE**
Insight in site, IFEZ



## LIFE

**32 TRIP**
빵 한 입, 여행 한 조각 IFEZ 송도빵지순례
<IFEZ BREAD TRIP>

**36 TREND**
FIDGET ON, STRESS OFF

**38 CULTURE**
IFEZ 문화소식
<아트센터인천, 트라이보울>

**40 MICE**
송도컨벤시아
ISSUE & CALENDAR

**42 EVENT**
일타강사 / 일상 한 컷 /
Opinion Leader's Review / 후기를 부탁해

# IFEZ

##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김종철**



**안녕하세요? <IFEZ 저널> 독자 여러분!**
**제9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김종철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IFEZ는 2003년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글로벌화를 통한 경제성장 거점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송도는 바이오와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영종은 항공·물류와 관광의 거점으로, 청라는 금융과 첨단산업, 문화의 중심으로 성장하며 인천의 도시 경쟁력과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번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인구 300만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장도시로 도약하고 있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역시 외국인 인구 1만 명을 훌쩍 넘기며,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에너지, 통상과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되고, 에너지 경쟁력과 탄소중립 대응이 기업의 경쟁력과 글로벌 투자·공급망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 첫째
### 글로벌 투자유치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하겠습니다.

IFEZ는 그동안 수많은 글로벌 기업과 국제기구를 유치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IFEZ는 개발 중심의 투자유치를 넘어, 국가 산업전략과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부합하는 전략적 투자유치로 전환하여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기업의 니즈에 맞는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산업·에너지·정주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IFEZ의 도시 경쟁력과 투자 매력도를 높이겠습니다.

### ✓ 둘째
### 기업이 성장하고 혁신이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단순히 외국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공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글로벌 기업의 기술과 자본이 대학, 연구기관, 창업가와 연결되고, 그 연결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혁신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성장이 곧 좋은 일자리와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 셋째
### 세계인이 찾고 머무는 문화·웰니스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도시는 문화와 콘텐츠를 즐기고, 건강과 휴식을 누리며,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IFEZ는 공항·항만 경제권과 수도권의 뛰어난 입지를 자랑합니다. 국제적 접근성을 바탕으로, K-컬처 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문화·콘텐츠가 관광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IFEZ만의 차별화된 문화·관광·웰니스 공간으로 발전시켜, 세계인이 찾는 도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 ✓ 넷째
### 동반성장과 지속가능한 IFEZ를 실현하겠습니다.

IFEZ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성과를 이어갈 새로운 성장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며 미래세대까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IFEZ 외연 확장을 차질 없이 착수하여, 강화남단의 발전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IFEZ 저널> 독자 여러분! 세계의 산업과 기업, 기술과 자본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과감한 선택과 도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IFEZ는 강화남단이라는 미래 성장동력을 통해 산업과 에너지, 기업과 투자, 기술과 인재가 서로 연결되는 혁신성장 생태계를 만들어 송도·영종·청라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김종철**

# THE NEXT BIO

## 생산의 힘을 넘어, 혁신 생태계로 향하는 송도 바이오







글로벌 바이오 기업과 연구·지원기관이 집적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세계적인 바이오 생산기지 송도가 다음 성장의 문을 연다. 생산의 힘에 인재양성·정밀의료·창업의 역량을 더하며, 기업과 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송도 바이오가 그리는 미래와 그 비전을 구체화하는 새로운 거점들을 통해 'THE NEXT BIO'를 만나본다.**



### #1.

### 바이오 혁신의 가능성이 되어온 생산의 힘

송도국제도시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과 연구·지원기관이 집적된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해왔다.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기업이 자리 잡았고, 바이오 원부자재와 연구개발 분야의 글로벌 기업도 잇따라 기반을 마련하며 산업 생태계의 외연을 넓혀왔다. 이제 송도 바이오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가'를 넘어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로 확장되고 있다. IFEZ는 생산을 통해 쌓아온 역량에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창업 기능을 더하며 새로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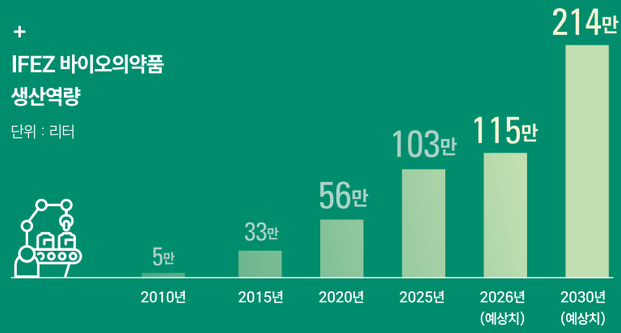
### 연결의 힘, 더 넓은 생태계로 향하는 송도 바이오

IFEZ가 그리는 다음 단계는 **기업과 대학, 연구·지원기관의 역량이 연결되는 바이오 혁신 생태계**다. 새롭게 문을 열거나 조성 중인 전문 인프라들은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새로운 기술과 창업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점으로 역할을 넓혀갈 전망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의 공약인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추진도 이러한 미래 구상과 맞닿아 있다. 아직 타당성과 입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 단계지만, 고급 인재 양성과 신약개발·원천기술 연구를 강화한다는 방향은 분명하다. 세계적 수준의 생산 기반에 이러한 기능들이 더해지면서 송도는 제조의 강점을 연구와 창업으로 이어가는 바이오 생태계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

**IFEZ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단위 : 리터





## TRAIN 01

###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키우는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가 2025년 11월 25일 문을 열고 2026년 3월부터 교육을 시작했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연면적 약 6,600m²,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 센터는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의 이론·실습 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갖췄다. 올해 8월까지 사업단이 교육한 바이오 인력은 총 2,528명이며, 이 가운데 555명이 센터의 실습시설을 활용했다. 인천경제청은 기업의 교육 수요를 발굴하고 교육기관과 입주기업의 협력을 확대해 현장과 연계한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세계적 수준의 생산시설 가까이에서 실무를 익히는 기반이 송도 바이오산업의 인재 공급을 뒷받침한다.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 START-UP 03

### K-바이오 랩허브

바이오 스타트업의 도전을 뒷받침할 K-바이오 랩허브가 지난 9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첫 삽을 떴다.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을 모델로 추진하는 국가 바이오 창업 거점으로, 초기 기업이 홀로 확보하기 어려운 연구장비와 공간을 공유하고 후보물질 발굴부터 전임상·임상, 인허가와 투자유치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장의 기회는 연결에서 넓어진다. 송도의 바이오 기업과 대학, 병원, 투자기관을 연결해 공동 연구와 투자를 촉진하고, 협력기업이 유망 스타트업을 추천하는 '골든 티켓' 등을 통해 참여의 폭도 넓힐 예정이다. K-바이오 랩허브는 연구성과가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바이오 혁신 생태계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 + 인천's 바이오 인력양성 인프라

| 연세대 K-NIBRT 실습교육센터 | 싸이티바 아시아태평양 패스트트랙센터 | 써모피셔 바이오프로세스 디자인 센터 |
|---|---|---|
| 바이오의약품 공정 이론·실습 교육을 통한 현장형 전문인력 양성 | 바이오의약품 배양·정제 등 공정 개발과 생산 실무 교육 | 배양·정제·품질분석 등 바이오의약품 공정 구현과 교육 지원 |



## R&D 02

### 마크로젠 송도글로벌지놈센터

세계적인 생산 역량을 갖춘 송도에 유전체 데이터로 혁신을 이끌 연구 거점이 더해졌다. 2026년 6월 준공한 마크로젠 송도글로벌지놈센터는 유전체 데이터 생산부터 AI 해석과 임상 분석까지 통합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유전체·전사체와 단일세포, 공간전사체 등을 분석하는 자동화·표준화 설비를 갖추고,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과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반도 마련했다. 이러한 분석 역량은 위탁생산 중심으로 성장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에 연구개발의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경제청도 센터가 생산 거점에서 연구개발 중심으로 산업 역량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마크로젠은 국내외 분석 거점을 연결하고 AI와 자동화 기술을 고도화해, 송도를 글로벌 정밀의료의 표준을 만들어갈 전초기지로 키워갈 계획이다.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91

### + 데이터로 보는 K-바이오 랩허브

**K-바이오 랩허브 총사업비**
2,240억 원

**바이오 혁신 스타트업 입주 예정**
60개사

**완공에 맞춰 구축할 첨단 연구장비**
59종 · 134대

R&D 스피드업, 애로기술 솔루션, 스케일업 펀딩, BM 구축, IP-RA-R&D, 오퍼레이팅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
6대 특화 프로그램

**2029년부터 입주기업 60개 사 대상 지원 계획**
414억 원

**K-바이오 랩허브 완공 예정**
2028년

# 도시는 역동적으로, 일상은 풍성하게

## 문화로 완성되는 도시, IFEZ



### ISSUE 1

**하나의 브랜드,**
**세 가지 매력 I♥FEsta**

I♥FEsta 영종 영상 바로가기







IFEZ의 도시를 채우는 또 하나의 힘, 문화다. 산업과 비즈니스의 도시를 넘어 문화와 콘텐츠가 살아 숨 쉬는 도시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올해 송도·영종·청라를 하나의 문화 브랜드로 연결한 'I♥FEsta(아이페스타)'는 서로 다른 세 도시의 매력을 K-컬처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엮으며 문화도시 IFEZ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난해 IFEZ 대표 축제 브랜드로 첫선을 보인 I♥FEsta는 올해 'K-Culture의 리듬, 세상을 연결하다'를 슬로건으로 한층 풍성해졌다. 송도 센트럴파크에서는 'K-STAGE'를 주제로 클래식·국악 크로스오버 공연과 한복 패션쇼 등 K-Fashion을 선보였다. 영종 씨사이드파크에서는 'K-BEAT'에 맞춰 록·국악 크로스오버 무대와 K-Food 체험이 흥을 더했다. 청라호수공원에서는 'K-OST'를 중심으로 OST 콘서트와 K-드라마·댄스 인터랙티브 체험이 어우러져 가을밤을 문화로 물들였다. 공간도, 콘텐츠도, 즐기는 방식도 달랐지만 세 도시를 잇는 중심에는 K-컬처가 있었다.

IFEZ는 앞으로 국제적 접근성과 도시별 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문화·관광 콘텐츠를 넓혀가며,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문화도시로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 +DATA로 보는 2026 송도 아이페스타

**5,600 여 명**

2026 송도 아이페스타
**5,600여 명 관람객 참여**

**233 명**

**233명에게 5천 원 상당**의
**'인천e지 쿠폰'** 지급

**Tour Friends**

12명 투어프렌즈(관광안내 전문 인력)의
**다국어 통역 지원**

### ISSUE 2

**일상에 스며드는 문화,**
**도시의 매력이 되다.**
**송도 트라이보울**
**재즈 페스티벌**

좋은 도시의 조건은 편리한 인프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집 가까이에서 공연을 만나고, 익숙한 공원을 거닐다 음악에 발걸음을 멈추는 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누리는 환경 역시 도시의 중요한 매력이다.

지난 9월 열린 '2026 송도 트라이보울 재즈 페스티벌'은 그런 도시의 풍경을 보여줬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축제에는 국내외 14개 팀이 참여해 다채로운 재즈 무대를 선보였다. 트라이보울 실내 공연장에서 깊이 있는 무대가 이어지는 한편, 야외에서는 사전예매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 재즈파크 빅밴드와 말로의 협연, 세계적인 베이시스트 에디 고메즈의 연주 등이 가을밤을 물들였다.

실내에서는 재즈 거장들의 음악 세계를 조명하는 렉처 콘서트가 열렸고, 트라이보울 인근 아트포레에서도 공연이 펼쳐지며 축제의 무대를 넓혔다. LP 음악 감상 부스와 레코드 마켓, 푸드트럭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돼 공연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축제의 즐거움으로 채웠다.

축제의 풍경을 완성한 것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아이와 함께 온 아버지, 부모님을 모시고 온 자녀들, 친구와 가을밤을 즐기는 청년들, 공원을 운동하다 음악에 이끌려 잠시 멈춰 선 시민들까지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누군가는 공연을 찾아왔고, 누군가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 우연히 음악을 만났다. 문화가 일상 가까이에 있는 도시, IFEZ가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도시 풍경이다.



# IFEZ GLOBAL CORE

## Fifth. 투자를 움직이는 도시의 힘

**기업과 투자자가 도시를 선택하는 기준은 분명하다.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곳인가 하는 점이다. IFEZ는 조세감면과 입지 지원 정책, 투자이민제도 등 다양한 정책으로 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하며 글로벌 비즈니스가 활발히 움직이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IFEZ 투자개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외국인 조세 인센티브

IFEZ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인센티브 제도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할 경우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 1. 취득세 감면 조건 투자 금액

TAX

15년간
100% 감면

**제조업**
1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
1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5백만 달러 이상

**사업·정보·창작예술서비스업**
1천만 달러 이상

**의료기관**
5백만 달러 이상

**R&D**
1백만 달러 이상
※ 석사 3년 이상, 상시 10인

TAX

최초 10년간 100% 감면
다음 3년간 50% 감면

**제조업·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자료처리·호스팅**
3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
2천만 달러 이상

**사업·정보·창작예술서비스업**
2백만 달러 이상
※ 석사 3년 이상, 상시 10인

**물류업**
1천만 달러 이상

### 2. 재산세 감면 조건

**취득세 15년간 이상 감면 요건 투자금액 충족 시**

TAX

최초 10년간 100% 감면
다음 3년간 50% 감면

- **적용 감면율이 100%(법정 50%+조례 50%)인 경우** 그 산출세액이 취득세 200만 원, 재산세 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
- **모든 혜택은 현행법 기준**으로 적용됨
- **근거법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제 2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동항 제2호의2, 동항 제2호의3, 동법 제12조의3



## 입지 지원 정책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에 적합한 입지와 비용 부담을 낮추는 지원이 중요하다. IFEZ는 국·공유지 장기 임대부터 투자 규모와 고용·수출 등에 따른 임대료 감면, 매각까지 다양한 입지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지원**

**최대 50년 임대 가능**

- 국·공유지에 대해 50년 범위 내 임대 가능
- 임대료는 토지가액에 10/1,000 이상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적용



**매각**

**(국·공유재산의 매각) 조성원가의 매각, 수의계약으로 가능**

**임대료 감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 적용)

### 100% 감면

- 외국인투자금액 2천만 달러 이상
- 1일 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
- 전체생산량의 50% 이상 수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100% 조달사업
- 전체생산량의 100% 수출사업
- 1백만 달러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 75% 감면

-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 달러 이상~2천만 달러 미만
- 1일 평균 고용인원 200명 이상~300명 미만
- 전체생산량의 50% 이상 수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75% 이상~100% 미만 조달사업
- 전체생산량의 75% 이상~100% 미만 수출사업

### 50% 감면

- 외국인 투자비율 5백만 달러 이상~1천만 달러 미만
- 1일 평균 고용인원 100명 이상~200명 미만
- 전체생산량의 50% 이상 수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50% 이상~75% 미만 조달사업
- 전체생산량의 50% 이상~75% 미만 수출사업

## 투자 이민 제도

투자가 안정적인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투자 이민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지정된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 자격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 유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F-5) 자격까지 신청할 수 있다.

### 1.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법무부에서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10억 원 이상 투자**

※ 2023년 5월 1일부터 금액 상향, 반드시 해외에서 반입

- **대상** :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관광펜션
- **기간** : 2027년 12월 31일까지
- **근거** :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고시(법무부고시 제2026-29호)

### 2. 비자구분

| F-1 방문동거비자 | F-2 거주비자 | F-5 영주비자 |
|---|---|---|
| **1년** | **2년/3년** | **영구** |
| 계약금·중도금으로 1억 원 이상 해당시설에 투자 시, 신청가능 | 10억 원 이상 해당시설에 투자 시, 신청가능 | F-2비자를 받은 후, 5년간 투자상품 보유 및 결격사유 없을 시 신청가능 |
| 투자자 본인만 가능 | 투자자/배우자/미혼자녀 가능,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 | 영주권 받은 후 부동산 매매 및 한국 내 거주변경 가능 |

# ifez News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IFEZ의 활동**

IFEZ는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글로벌 톱 텐 도시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IFEZ의 활동을 소개한다.

1

## 김종철 신임 인천경제청장 취임, 기업 현장서 첫 공식 일정

김종철 제9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난 9월 18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투자유치·산업생태계·문화웰니스·동반성장 등 4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IFEZ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와 통상 분야의 경험을 쌓은 김 청장은 취임 첫날부터 주요 사업 현장을 찾으며 현장 행보에 나섰다.

첫 방문지는 송도국제도시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였다. 반도체 산업의 투자 현황과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과 투자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영종도 유보지에서는 첨단산업 육성과 투자유치를 위한 활용 가능성을 살피고, 청라하늘대교에서는 전망대 등 관광자원의 활성화 가능성을 점검했다. 송도·영종·청라를 차례로 찾은 김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외국인 투자유치와 지역특화사업 육성, 정주환경 개선 등 후속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2

## 하나금융타운 완성, 청라에 금융·IT 전문인력 4,000명 모인다

지난 10월 2일 청라국제도시에서 하나금융그룹 청라 헤드쿼터 오프닝 행사가 열리며 2012년 첫 협약 이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조성해 온 하나금융타운이 완성됐다. 2017년 금융 IT 인프라를 집적한 통합데이터센터, 2019년 글로벌 금융인재 양성을 위한 하나글로벌캠퍼스에 이어 올해 5월 그룹 헤드쿼터가 준공됐으며, 9월부터는 주요 관계사 임직원의 이전도 시작됐다.

청라 헤드쿼터에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등 10개 관계사 임직원 약 2,200명이 순차적으로 이전하고 있다. 기존 통합데이터센터 상주 인력까지 더하면 하나금융타운에는 약 4,000명의 금융·IT 전문인력이 근무하게 된다. 하나금융그룹은 향후 10년간 약 3조 4천억 원의 직·간접 경제유발효과와 약 1만 5천 명의 직·간접 고용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인천지역 혁신기업을 위한 2,000억 원 규모의 '유니콘 펀드' 조성과 기술 기반 중소기업 대상 1,500억 원 규모의 보증지원도 추진하며 하나금융타운은 지역 동반성장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하나금융그룹 청라 헤드쿼터 오프닝

3

## IFEZ 외국인 주거 고민 덜어줄 맞춤형 공개강좌 개최

외국인이 낯선 국내 임대차 제도를 이해하고 보다 안전하게 주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8월 20일 송도 G타워 IFEZ 글로벌센터에서 IFEZ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IFEZ 외국인과 함께하는 주거 공개강좌'를 열었다. 올해 2~3월 IFEZ 거주·근무 외국인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여건 개선 설문조사에서 주거 분야가 우선 개선이 필요한 분야 1위로 꼽힌 데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강좌에서는 전문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 절차와 필요한 서류, 전세보증보험 제도 등을 소개하고 계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이 궁금했던 주거 문제를 직접 질문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인천경제청은 외국인의 실제 생활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 계약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고 있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4

## 시민 아이디어, 스마트시티 해법으로 잇는다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직접 찾아 스마트 기술로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시민참여 리빙랩(Living Lab)'이 운영되고 있다. 시민과 시설관리 실무자, 분야별 전문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도시관리형과 생활체험형으로 나눠 11월까지 총 10회 진행한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참여 주체가 문제를 함께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은 뒤 실제 도시 환경에서 적용 가능성까지 검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시관리형에서는 통합관제와 도시기반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생활체험형에서는 시민연구원이 일상에서 경험한 불편을 공유하며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이 가운데 우수 과제는 실증(PoC)을 거쳐 효과와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 뒤 향후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혁신 모델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12월에는 성과공유회를 열어 리빙랩에서 찾은 해법과 우수사례를 시민·전문가·관계기관과 공유하며 활용 가능성도 모색한다.



ifez News

5

## 바이오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젝트 K-바이오랩허브 인천 송도에서 첫 삽을 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30일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K-바이오랩허브 착공식을 개최했다. 2021년 사업 추진 확정과 송도 선정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와 건축설계를 거쳐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다. 연세대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 인천광역시는 건축비를 부담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단 운영과 연구장비 구축,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건물은 2028년 11월 완공 예정으로, 초기기업 50개사와 성장기업 10개사를 위한 입주 공간을 마련한다.

연구장비는 건립 기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올해 10월까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임시공간에 17종·24대의 장비를 우선 구축해 기업이 활용하도록 하고, 완공에 맞춰 총 59종·134대의 첨단장비를 갖출 계획이다. 입주기업은 2028년에 선발하며, 2029년부터는 6대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60개사에 41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후보물질 발굴과 전임상·임상, 인허가, 투자유치 등 기업별 성장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6

## 청라호수공원 레이크하우스 새단장, 수상레저·카페테리아 통합 운영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호수공원 레이크하우스의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지난 9월 23일부터 시민을 맞이했다. 2019년 준공된 레이크하우스는 1층 매점과 수상레저시설, 2층 카페테리아를 갖춘 공원 내 편의시설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8월 공개입찰을 통해 신규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 기존에 각각 운영하던 카페테리아와 매점, 수상레저시설을 한 사업자가 통합 운영하도록 체계를 개편했다. 시설·안전관리부터 이용객 응대까지 하나의 운영체계로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수상레저시설도 기존 오리배 중심에서 신데렐라보트, 문보트, 패밀리보트 등 3종이 추가돼 다양해졌다. 이용요금은 기구에 따라 3만 5,000원부터 3만 9,000원까지다. 낮에는 호수 경관을 바라보며 수상레저를 즐기고, 야간에는 조명을 밝힌 보트를 통해 색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새롭게 단장한 레이크하우스는 청라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7

## 송도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가동, K-NIBRT 올해 2,528명 교육

지난해 송도에 문을 연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교육 운영에 들어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21년부터 5년에 걸쳐 연면적 약 6,600㎡, 지상 4층 규모의 실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의 이론·실습 교육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은 연세대학교 K-NIBRT 사업단이 중심이 돼 재직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8월까지 K-NIBRT가 교육한 바이오 인력은 총 2,528명으로, 이 가운데 555명이 센터의 실습시설을 활용했다.

센터가 본격 가동되면서 세계적인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갖춘 송도에 전문인력 양성 기능도 강화됐다. 송도에는 싸이티바 패스트트랙센터, 써모피셔 바이오프로세스 디자인센터 등 교육 인프라가 집적돼 있으며,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자체 프로그램과 대학 협력을 통해 인재 양성에 참여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기업의 교육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육기관과 입주기업 간 연계를 확대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8

## 청라호수공원에서 즐기는 철인3종, 스포츠·문화·모빌리티 한자리에

지난 9월, 청라호수공원과 청라국제도시를 무대로 철인3종경기와 RC 모빌리티, 청소년 K-POP 댄스를 한자리에서 즐기는 '2026 IFEZ 철인3종경기대회'가 진행됐다. 메인 경기인 IFEZ 청라 철인3종대회는 청라호수공원에서 수영한 뒤 청라국제도시의 도로를 사이클로 달리고, 다시 공원으로 돌아와 달리기로 마무리하는 도심형 코스로 구성됐다. 전국 동호인과 선수 등 약 500명 참가를 목표로 수영 1.5km, 사이클 40km, 달리기 10km의 올림픽 코스로 기획됐다.

본 경기에 앞서 9월 12일에는 청라호수공원 물속광장에서 RC카 전시와 미니카 조립 및 레이싱, RC보트 시연·체험 등을 선보이는 'IFEZ RC카 챔피언십'을 마련했다. 같은 날 청라호수공원 멀티프라자에서는 인천지역 청소년이 참여하는 'IFEZ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도 진행됐다. 전문 선수 중심의 대회를 넘어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스포츠·문화 행사로 청라의 도심 공간을 폭넓게 활용하며 청라국제도시의 다양한 매력을 알렸다.



ifez News

9

## 청라하늘대교 아래 펼쳐지는 사계절, 야간 '미디어라운지' 운영

청라하늘대교가 밤이면 새로운 미디어 공간으로 변신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9월 8일부터 청라하늘대교 교량 하부를 활용한 야간 영상 콘텐츠 '미디어라운지(MEDIA LOUNGE)' 운영을 시작했다. 교량 상판 하부의 넓은 공간을 대형 스크린처럼 활용해 영상과 바다, 교량 경관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첫 번째 콘텐츠는 '사계절'로, 봄부터 겨울까지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과 정서를 하나의 영상에 담았다.

영상은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총 네 차례 상영하며, 일몰 시간과 날씨, 이용 상황 등에 따라 운영 시간과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별도의 관람시설을 이용하지 않고도 바다를 따라 산책하다 교량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어 청라하늘대교의 야간 경관을 즐기는 새로운 방식이 더해졌다는 평가다. 향후에는 계절 변화와 지역 특색을 담은 콘텐츠를 추가해 교량 하부 공간을 활용한 야간 볼거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10

## IFEZ 체류 외국인, 전통간식 만들며 한국문화 체험

IFEZ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전통간식을 직접 만들며 음식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8월 28일 G타워 IFEZ 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통간식 곶감단지·찹쌀떡 만들기'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전문 강사의 설명과 시연에 따라 재료를 손질하고 반죽과 앙금을 활용해 곶감단지와 찹쌀떡을 완성하며 전통간식의 특징과 만드는 방법을 익혔다. 서로 다른 국적의 참가자들이 완성한 음식을 나누며 각자의 문화와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교류의 시간도 마련됐다.

인천경제청은 IFEZ 글로벌센터를 통해 2011년부터 외국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지역 정착을 돕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언어와 생활정보, 문화교류 등 분야별 수요를 파악하고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도 IFEZ 체류 외국인의 생활 수요에 맞춘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갈 예정이다.




11

## IFEZ 체류 외국인, 인천 역사·문화 현장 탐방

IFEZ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9월 18일 열린 'IFEZ 체류 외국인 역사탐방 프로그램'은 외국인에게 인천의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소개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송도 G타워에서 출발해 개항의 흔적이 남은 원도심과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들이 인천의 역사적 배경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인천개항박물관과 개항장 근대문화거리에서 개항기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본 뒤 신포국제시장과 차이나타운, 자유공원, 월미도 등을 차례로 찾았다. 월미도에서는 월미바다열차를 타고 인천항 주변의 주요 경관을 둘러보며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체험했다. IFEZ 글로벌센터는 문화체험과 생활정보 제공, 지역사회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외국인이 인천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




12

## 영종 항공 MRO 클러스터 본격화, 대한항공 1,500억 원 투자

영종국제도시에 항공기 엔진과 핵심 부품의 정비를 담당할 대규모 항공 MRO(수리·정비·개조)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대한항공은 지난 9월 30일 송도 G타워에서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내 항공 MRO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6자 투자·입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부지 조성과 행정 지원,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등 사업 추진에 협력한다.

대한항공은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내 5만 692㎡ 부지에 약 1,500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10만 1,151㎡ 규모의 엔진·부품 정비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9년 1월 착공해 2031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기존 엔진 테스트셀 등 항공정비 인프라와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클러스터가 가동되면 대한항공의 연간 엔진 정비 물량은 현재 88대에서 502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MRO 분야에 2,0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종국제도시의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nterview No. 16

# IFEZ 내 글로벌기업을 만나다 <지니지>

**「지니지 주식회사(GENIEG CO. LTD)」는 엑소좀을 기반으로 하는 피부관리(스킨케어) 브랜드 '엑소좀 오로라'를 중심으로 노화방지(프리미엄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K-뷰티 기업이다. 국내 시장에서 축적해 온 제품 경쟁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글로벌 뷰티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인천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국제협력의 시야를 넓히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신용석 국제협력특보는 주식회사 지니지의 이향심 대표이사를 만나 회사 창립 8년 만에 세계시장에서 주목받는 화장품을 론칭할 수 있게 된 비결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신용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국제협력특보



**이향심**
지니지 대표이사



GENIEG
roopretelcham

| | |
|---|---|
| 구분 | 중소기업 |
| 제품/사업 | 화장품 제조업 |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

지니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용석(이하 신)** 대표이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직업전선에 나가서 일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향심(이하 이)** 어린 시절 넉넉하지 못한 가정환경으로 일찍부터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팔며 일을 시작했고, 이후 피부숍과 옷 가게도 운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의 흐름을 읽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좋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신뢰를 쌓는 것이 사업의 기본이자 성장의 밑바탕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 화장품 사업에는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이** 피부숍을 운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화장품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고,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도 넓어졌습니다. 특히 K-뷰티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화장품이 국내에서 개발·생산되는 과정을 접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신제품 개발과 제조공정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 지니지 회사를 2018년도에 창업하셨는데 첫 제품 엑소좀 오로라의 개발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이** 저희 회사의 주요 제품 '엑소좀 오로라'는 엑소좀을 활용하여 피부 본연의 건강을 되찾아 주는 피부관리 화장품이며, 또 다른 제품 '에스 캔디'는 섭취 후 체외로 기름이 배출되는 이색 식품입니다. 제품 개발을 위해 실험실과 연구소에서 연구와 검증을 거쳤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생산업체를 선정해 생산을 위탁하기까지 약 2년이 걸렸습니다.

**신** 엑소좀은 어떤 물질입니까.

**이** 엑소좀은 세포가 세포 외부로 방출하는 소낭 형태의 세포외소포체(EV) 중의 하나로, 진핵생물에서 세포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해 분비되는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입니다. 의약품이나 화장품에서는 엑소좀을 운반체로 활용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신** 신제품 출시 이후 권위 있는 기관에서 연속적으로 상을 받으셨더군요.

**이** 저희 회사는 지난해 말 한국 브랜드 평가위원회가 주최하고 KBEI와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한국 브랜드 소비자 평가대상'에서 3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지니지 회사가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고객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질 좋은 문화정책'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3년 연속수상은 급변하는 화장품 시장에서 품질에 대한 집념과 고객 중심의 경영철학을 지켜온 결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엑소좀이란?**

세포 내에서 생성 후 세포외부로 방출되는 정보교환 물질로 세포와 세포 사이 정보를 전달해주는 나노(NANO)크기의 가장 작은 물질

※ 나노(NANO) = 10억분의 1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

※ 출처 : 지니지 홈페이지

**신** 중국을 시작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과정과 현황은 어떤지요.

**이** 2024년에 중국 정부 위생 당국의 허가를 받고 상해에서 처음으로 론칭했습니다. 한 세트가 3천 위안(60만 원)이 넘는 중고가 상품이므로 백화점과 면세점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후 중국 현지 자회사를 설립해 중국 전역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일본을 비롯한 중동시장 등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 국내시장과 외국시장의 판매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국내가 20% 해외가 80% 정도인데 앞으로 해외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가격대가 조금 낮은 신제품이 출시되면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본사를 두게 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 인천은 신제품 개발과 생산 그리고 해외시장도 개척하는 회사 책임자가 필요한 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도시입니다. 세계적인 국제 공항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관련 업체와 연구소와 제조업체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곳입니다. 복잡한 대도시가 아니라 차분한 분위기의 송도국제도시도 마음에 듭니다.

**신** 회사 창립 8년 만에 K-뷰티의 상징적 기업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지니지 회사 임직원분들의 건승을 빌면서, 2027년에 새롭게 론칭하는 '자녹향'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장시간 대담에 감사드립니다.





# THE KEY PLAYERS OF IFEZ

## 미디어문화과 홍보팀

**도시의 가치를 발견하고 IFEZ의 매력을 세상에 알리다**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다. 도시가 가진 가치와 가능성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제대로 알리는 일이다. IFEZ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미래 비전을 국내외에 전하는 홍보팀은 다양한 매체와 공간을 통해 IFEZ와 세상을 연결한다. 그 중심에는 IFEZ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한눈에 만날 수 있는 'IFEZ 홍보관'이 있다.**

글. 황예지 사진. 이덕재

### IFEZ의 오늘을 기록하고, 가치를 전하다

홍보팀은 IFEZ의 성장과 변화를 국내외에 알리는 부서다. IFEZ 저널과 각종 홍보물 제작과 더불어 방송·언론매체, 전광판, 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도시의 소식과 비전을 전달하고 있다.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이후 갯벌 위에서 출발한 IFEZ는 글로벌 기업과 국제기구, 바이오·첨단·반도체 산업 등이 모여드는 국제도시로 성장했다.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 170억 8,200만 달러, 입주기업 3,860개, 글로벌 기업 367개 등 다양한 지표가 그 성과를 보여준다. 홍보팀은 이러한 변화와 성과를 시민과 국내외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데 힘쓰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 혁신허브'라는 IFEZ의 비전과 '새로운 기준, 이제는 인천'을 널리 알리는 것이 홍보팀의 중요한 역할이다.

### 33층에서 만나는 IFEZ의 어제와 내일

홍보팀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는 G타워 33층에 자리한 'IFEZ 홍보관' 운영이다. 2015년 3월 문을 연 홍보관은 2025년 7월 전면 리모델링을 거쳐 IFEZ의 성장 과정과 미래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20여 년의 역사를 담은 전시패널과 바이오·스마트시티 등 주력 산업 콘텐츠, 갯벌과 송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 갤러리, IFEZ의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디오라마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갖췄다.

그중에서도 길이 21m의 실감형 미디어아트 '빛의 터널'은 홍보관의 대표 콘텐츠다. 바닥과 한쪽 벽면의 LED 패널, 반대편 벽면의 흑경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약 4분간 IFEZ의 성장 스토리가 빛과 영상으로 펼쳐진다. 여기에 33층에서 바라보는 센트럴파크와 송도국제도시의 360도 파노라마 전망까지 더해져 IFEZ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IFEZ의 성장 과정과 미래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IFEZ 홍보관



IFEZ 홍보관 곳곳에서 방문객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서포터즈들

**언어의 경계를 넘어, 세계와 만나다**

홍보관의 다채로운 콘텐츠를 방문객에게 더욱 가깝게 전하는 이들은 서포터즈다. 2015년 개관 당시부터 함께해 온 서포터즈는 현재 영어 6명, 중국어 3명, 일본어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시 시민명예외교관과 문화해설사로서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브리핑과 관람객 안내, 시설 운영 등을 담당한다. 이들은 외국인 방문객에게 IFEZ의 성장 배경과 산업적 가치를 소개하고, 시민에게는 익숙한 도시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홍보팀은 이처럼 홍보 콘텐츠와 사람의 설명을 결합해 IFEZ의 이야기를 국내외 방문객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IFEZ의 성장을 기록하고 도시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홍보팀





IFEZ 홍보관에서 볼 수 있는 송도국제도시의 360도 파노라마 전망

**보고, 느끼고, 다시 찾고 싶은 IFEZ**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도시를 알리는 방식도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 홍보팀은 앞으로도 관람객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춰 홍보 콘텐츠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빛의 터널'을 비롯한 영상 콘텐츠를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해, 다시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홍보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홍보관이 시민에게는 자신이 사는 도시에 대한 자긍심을, 국내외 방문객에게는 IFEZ에 대한 관심과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을 전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 IFEZ의 성장을 기록하고 도시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홍보팀. 오늘도 더 많은 사람에게 IFEZ의 가치를 전하며 도시와 세계를 잇고 있다.



MINI INTERVIEW

# 내가 만난 IFEZ는 [ ]이다.



[ New World ]

**윤인영** 어릴 적 해수욕을 하던 송도 앞바다, 아버지와 낚시하던 영종도, 친구 집에서 바라보던 청라까지 모두 새롭게 변했어요. 그 변화를 지켜본 저에게 IFEZ는 늘 새로움을 발견하는 'New World'입니다.



[ 기분 좋은 메아리 ]

**지윤정** 제가 전한 IFEZ 이야기에 관람객들이 감탄하고 공감할 때 큰 보람을 느껴요. 익숙했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되고, 그 이야기가 다시 IFEZ의 가치를 알리는 '기분 좋은 메아리'가 되니까요.



[ 꿈의 무대 ]

**유연정** IFEZ에는 세계의 인재와 기업이 모여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어요. 송도·영종·청라에서 수많은 열정이 모여 혁신을 만들고, 새로운 기회와 꿈이 현실이 되는 곳. 저에게 IFEZ는 '꿈의 무대'입니다.



[ 오마나! Oh, My God! ]

**이영연** IFEZ를 보면 저절로 "오마나!"라는 감탄사가 나와요. 갯벌과 바다였던 공간이 송도·영종·청라로 변하고 첨단산업과 스마트시티의 미래가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송도의 기적'을 보면 절로 나오는 탄성입니다.



[ 갯벌 위에 우뚝 솟은 기적 ]

**김서영** 2015년 홍보관 개관부터 함께하며 IFEZ의 변화를 10년 넘게 지켜봤어요. 갯벌과 바다가 새로운 땅이 되고 그 위에 눈부신 도시가 완성되는 과정을 보며, 말 그대로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자부심 ]

**송연수** 바다가 육지가 되고 멋진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이제는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 교육기관이 모여드는 IFEZ를 많은 분께 소개하며 저 역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자부심'입니다.



[ 친구 ]

**함경란** 송도·영종·청라는 각자의 매력을 지니면서 IFEZ라는 이름 아래 함께 성장해 왔어요. 세계 각국의 관람객들도 세 도시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꿈꾸죠. 2003년부터 오늘, 그리고 미래까지 함께 성장해 갈 '친구'입니다.



[ 길 ]

**조영희** IFEZ는 세계로 통하는 '길'이에요. 그 중심에는 하늘길의 상징인 인천국제공항이 있죠. 2026년 상반기 국제선 여객 세계 1위, 누적 이용객 10억 명을 기록하며 인천과 세계를 잇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곳 ]

**김미향** 아시아부터 유럽, 남미, 아프리카까지 세계 각국에서 많은 분들이 IFEZ를 찾아오세요. 아름답고 친절한 도시의 모습에 "Great!"를 외치는 모습을 볼 때면 저도 뿌듯해요. IFEZ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 Insight in site, IFEZ

**IFEZ는 세계와 연결되는 관문이자 글로벌 혁신의 중심지다. 이곳에는 유엔(UN) 기구부터 국제기구, 인천글로벌캠퍼스(IGC), 글로벌센터까지 각 분야를 선도하는 기관과 단체들이 자리하고 있다.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IFEZ의 주요 기관과 단체들의 소식을 전한다.**





## GCF 기후금융 200억 달러 시대

송도국제도시에 본부를 둔 녹색기후기금(GCF)의 전체 사업 규모가 인천 안착 13년 만에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GCF는 지난 3월 열린 제44차 이사회에서 18개 신규 기후사업에 9억 6,030만 달러 투자를 승인하며 전체 포트폴리오 규모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2013년 출범한 GCF 송도 본부에는 현재 약 70개국 출신 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사회에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개발금융기관 관계자 등 회의마다 350여 명 이상이 참석하고 있다.

올해 GCF는 글로벌 지역사무소 체제 구축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역별 거점을 확대하면서 송도 본부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후금융 사업을 총괄해 나갈 계획으로, 송도의 국제금융 네트워크와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GCF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금융기관의 집적을 바탕으로 송도의 국제·기후금융과 청라의 민간·디지털 금융을 연계해 관련 산업과 기관의 투자유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GREEN CLIMATE FUND

**기관성격** 국제기구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 IGC 학생과 글로벌 경제인, 송도에서 만나다

인천글로벌캠퍼스(IGC) 운영재단과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는 지난 9월 3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유타한인상공회의소와 함께 'K-Global Talent Connect Forum'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IGC 재학생과 한인 경제인을 연결해 취업과 창업, 산학협력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한상대회와 연계해 열린 행사에는 해외 한인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관련 기관 관계자, IGC 재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산업계의 인재 수요, 청년 해외 진출 전략 등을 공유했다.

행사에서는 IGC의 교육·연구 성과와 산학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 역량과 미국 시장 진출 경험 등을 나누는 강연이 진행됐다. 이어 취업과 창업, 무역, AI 기술, 실리콘밸리 등 12개 분야의 스피드 네트워킹을 통해 학생들이 국내외 기업인 및 경제인과 직접 만나 진로와 취·창업 기회, 산업계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IGC는 학생들의 글로벌 진로 개발과 기업의 인재 발굴, 산학협력이 이어지는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IGC INCHEON GLOBAL CAMPUS

**재단/법인**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 UNPOG 설립 20주년, 지속가능발전 위한 협력 강화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9월 7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UNPOG와 인천시, 국제기구,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지난 2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공행정과 거버넌스의 역할을 공유했다. 2006년 서울에서 출범한 UNPOG는 2017년 송도로 이전한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공공행정 및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지원해왔다.

UNPOG는 각국이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분석과 연구, 지식·경험 교류, 기술 자문, 파트너십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유엔기구, 국제·지역기구, 학계, 시민사회 등과도 협력하며 국제적인 정책 역량과 협력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송도컨벤시아에서 '효과적인 거버넌스와 AI 대전환'을 주제로 제10회 리저널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UNPOG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ivision for Public Institutions and Digital Government
United Nations Project Office on Governance

**기관성격** 유엔사무국 산하기구
**위치**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 국제 중재의 새 거점, 송도에 APIAC 코리아 출범

아시아태평양국제중재원(APIAC) 한국센터가 송도국제도시에 문을 열었다. APIAC 코리아는 지난 8월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APIAC 코리아 그랜드 오프닝 및 글로벌 서밋'을 열고 한국센터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APIA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 상사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글로벌 중재기관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대응과 국제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한국센터는 송도를 거점으로 국제 중재 및 법률서비스 분야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범과 함께 지역 기관과의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APIAC 코리아는 인천상공회의소, APIAC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기업의 국제 통상분쟁 예방과 대응,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도 국제 중재·조정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실무 교류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분쟁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송도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연결하는 국제 중재 및 법률서비스 기반을 넓혀갈 예정이다.

## 극지연구소 아라온호, 83일간 북극 탐사 마치고 귀항

극지연구소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83일간의 제17차 북극 탐사를 마치고 지난 10월 1일 귀항했다. 이번 탐사에서 아라온호는 북극해의 기후와 해양환경, 생태계, 해저환경을 조사하고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실측 자료를 수집했다. 특히 지난해 해빙으로 회수하지 못했던 장기계류장비 2기를 회수해 북극해의 장기변화 추세와 미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시계열 자료를 확보했다.

척치 보더랜드 북위 75도 해역에서는 그동안 음향·영상 데이터로만 확인됐던 오징어 성체의 실물 표본을 채집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표본은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해 생물 분포와 먹이망 변화를 분석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북위 약 79.5도 중앙북극해에서는 해저 퇴적물과 해수를 채취해 장기적인 환경 변화도 추적했다. 이와 함께 북극항로의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해빙의 두께와 물리적 특성을 직접 관측했으며, 확보한 실측 자료는 향후 AI 기반 해빙 및 항로 위험 예측기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조지메이슨대, 디지털아트로 그리는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캠퍼스가 '2026년 제6회 소셜임팩트 디지털 아트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저출산과 고령화, 환경문제, 교육 등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외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과 웹툰, 컴퓨터 게임, 영상, 일러스트레이션 등 5개 분야의 작품을 공모했으며, 총상금은 860만 원 규모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은 오는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에서 전시되며, 현장 관람과 함께 최종 심사가 진행된다. 시상식은 11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캠퍼스는 2021년부터 매년 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첫해 59명으로 시작해 지난해까지 누적 참가자 1,000명 이상, 전시 관람객 3,000명 이상을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도 참여하며 국제적인 청년 디지털아트 교류의 장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 CTCN·GGGI, 송도서 기후기술·AI 국제협력 머리 맞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군소도서개도국(SIDS)의 기후 대응 역량을 높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에너지 시스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제 포럼이 지난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관하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Google DeepMind와 협력해 마련했으며, 군소도서개도국의 국가지정기구(NDE)를 비롯해 기후기술 전문가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놓인 군소도서개도국을 대상으로 기후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AI를 활용해 보다 회복력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각국이 직면한 에너지 전환 과제와 기후기술 수요를 공유하고, AI 기술을 실제 기후 대응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살폈다. 각국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과 국제 네트워크의 역할을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APIAC

**기관명** 아시아태평양국제중재원 한국사무소(APIAC 코리아)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KOPRI 극지연구소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주무기관** 해양수산부
**업종**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26

GM MASON KOREA George Mason University

**재단/법인** 메이슨 코리아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4

GGGI

**기관 성격** 국제기구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 ifez — BREAD Trip

## 빵 한 입, 여행 한 조각 IFEZ 송도빵지순례

**찬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갓 구운 빵의 온기가 더욱 반갑다. 제과명장의 손길로 완성한 빵부터 건강을 생각한 비건 베이커리, 갓 나온 소금빵과 달콤한 슈크림까지. 저마다의 매력으로 입맛을 사로잡는 송도의 베이커리 세 곳으로 맛있는 겨울 빵지순례를 떠나보자.**



1

### 지구를 생각하는 빵, 건강을 채우는 한 입
### 지구본송도

빵을 좋아하지만 건강이 걱정되었다면 송도의 '지구본'에 주목해보자. 두부로 만든 베이글과 소금빵, 식물성 재료를 활용한 음료까지. 익숙한 베이커리 메뉴에 건강한 변화를 더한 비건 베이커리다. '지구의 본질과 뿌리를 생각하는 세계'라는 이름에는 우리가 먹고 소비하는 방식부터 지구를 생각하자는 마음이 담겨 있다.

눈여겨볼 메뉴는 단백질 8.7g을 함유한 두부 베이글이다. 비건 크림치즈를 곁들이면 더욱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다. 특허받은 비건 버터로 만든 두부 소금빵에 제철 과일인 사과를 이용한 타르트도 빠질 수 없다. 따끈한 빵에 고소한 비건 들깨크림을 듬뿍 올린 '우리지구커피'까지 곁들여보자. 모든 제조 음료에 설탕을 넣지 않아 당 섭취를 줄이고 싶은 사람도 부담을 덜 수 있다. 올겨울, 맛있는 빵 한 입과 설탕 제료 음료로 건강까지 챙기는 특별한 빵지순례를 지구본송도에서 경험해보자.







지구본송도
인스타그램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56 BT센터 105호
**영업시간** 평일 08:30~19:00 / 주말 10:30~21:00
※ 주문 마감: 평일 18:45 / 주말 20:45
(베이커리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카페 한쪽에 마련된 리필스테이션
'채움상점'






**+ 필요한 만큼 채우는 제로웨이스트 실천!**
빵을 먹고 난 뒤에는 매장 내 리필스테이션 '채움상점'도 둘러보자. 병아리콩, 캐슈넛, 비정제 원당 등을 필요한 만큼 덜어 구매할 수 있다. 지구본송도에서는 포장재는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는 작은 습관을 실천해볼 수 있다.

## 2

### 골라 먹는 재미, 맛은 명장이 보장!
### **안스베이커리**

빵을 고르는 데도 행복한 고민이 필요하다. 진열대 가득 펼쳐진 다채로운 빵들이 하나같이 먹음직스럽기 때문이다. 1993년부터 맛과 품질을 지켜온 '안스베이커리'는 대한민국 제7대 제과명장 안창현 명장의 손길이 담긴 베이커리다. 오랜 시간 쌓아온 제빵 기술과 엄선한 재료를 바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빵을 선보인다. 짭조름한 버터 풍미가 매력적인 소금빵부터 특제 명란소스를 더한 명란바게트, 부드러운 크림과 팥앙금이 어우러진 팥모스까지. 담백한 식사빵부터 달콤한 디저트까지 취향대로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오랜 세월 사랑받아 온 베이커리답게 어떤 빵을 골라도 만족스러운 맛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하나둘 고르다 보면 어느새 쟁반이 빵으로 가득 차기 일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빵 쇼핑의 즐거움이 기다리는 곳, 안스베이커리다.

안스베이커리 인스타그램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60
**영업시간** 매일 08:00~23:00
※ 음료 주문 마감 21:30




담백한 식사빵부터 달콤한 디저트까지 취향대로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안스베이커리 송도점 베스트 TOP 10!**
① 소금빵 ② 명장샌드위치 ③ 명란바게트 ④ 구름빵 ⑤ 팥모스 ⑥ 부드러운 크림롤 ⑦ 미니 우유모닝 ⑧ 데리버거 ⑨ 밀피유 소보로 ⑩ 뉴요커 소시지




**+ 빵과 커피를 들고 송도센트럴파크로!**
안스베이커리 송도점에서 빵을 골랐다면 건너편 송도센트럴파크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호수를 따라 이어진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송도의 겨울 풍경을 감상하기 좋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갓 고른 빵이 함께라면 차가운 겨울바람도 제법 낭만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 3

### 갓 구운 빵의 유혹, 기다림마저 달콤하게
### **샹끄발레르**

갓 구운 빵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순간, 빵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마음도 덩달아 들썩인다. 송도의 베이커리 '샹끄발레르'에서 만날 수 있는 풍경이다. 특히 정해진 시간에 갓 구워 나오는 소금빵은 이곳의 인기 메뉴. 따끈한 빵을 결대로 찢으면 고소한 버터 향이 퍼지고, 부드러운 속살과 짭조름한 맛이 입안 가득 어우러진다. 소금빵 못지않게 사랑받는 슈크림도 놓칠 수 없다. 주문하면 그 자리에서 크림을 채워주는데, 바삭한 슈 안에 부드러운 크림이 가득해 한입 베어 무는 순간 달콤한 행복이 밀려온다. 이 맛의 바탕에는 26년간 제과·제빵의 길을 걸어온 설문웅 오너 셰프의 고집이 있다. 프랑스와 일본에서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천연 발효종과 직접 만든 소스·잼을 사용하고, 호밀과 통밀도 직접 제분하는 등 재료와 공정에 정성을 기울인다. 매일 먹어도 맛있고 건강한 빵을 만들겠다는 철학이 담긴 곳. 올겨울, 갓 구운 빵의 온기와 달콤한 슈크림이 기다리는 샹끄발레르로 빵지순례를 떠나보자.








샹끄발레르 인스타그램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130번길 14
**영업시간** 매일 09:00~21:00

**+ 소금빵을 만나는 가장 맛있는 타이밍!**
샹끄발레르의 소금빵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갓 구워 나오는 시간을 기억해두자. 인기 메뉴인 만큼 늦게 방문하면 품절될 수 있으니 출고 시간에 맞춰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 소금빵 나오는 시간 : 10:30, 12:00, 13:00, 14:00, 15:00



# Fidget on, Stress Off

## 촉감으로 마음을 달래는 피젯토이의 세계

**바쁘고 지친 일상 속, 손끝의 감각으로 스트레스를 달래는 '촉감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말랑이를 주무르고, 클릭커를 누르고, 스피너를 돌리며 잠깐의 쉼과 재미를 찾는 요즘. 직장인의 책상 위까지 파고든 다채로운 피젯토이의 세계를 만나보자.**



### 만두 말랑이

2026년 해외 SNS를 달구고 있는 만두 모양의 말랑이. 손으로 꾹 누르면 납작해졌다가 천천히 통통한 모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묘한 쾌감을 선사한다. 작은 찜기 패키지와 귀여운 디자인에 랜덤 개봉과 희귀 컬러를 찾는 수집 재미까지 더해져 틱톡 등 숏폼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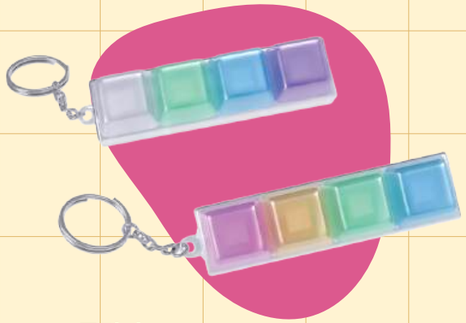
### 빵 모양 말랑이

진짜 빵처럼 폭신폭신한 촉감이 매력적인 스펀지 말랑이. 손으로 꾹 누르면 납작하게 눌렸다가 천천히 원래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있다. 식빵부터 크루아상, 바게트 등 먹음직스러운 디자인까지 다양해 눈으로 한 번, 손끝으로 또 한 번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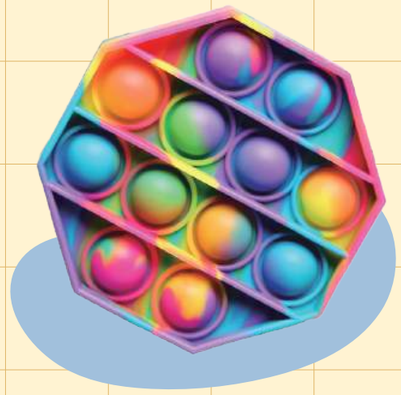
### 왁뿌볼

말랑한 볼을 감싼 얇고 단단한 왁스 막을 손으로 '와작' 깨뜨리는 것이 핵심이다. 겉면이 부서지는 순간 전해지는 독특한 촉감과 소리가 평범한 말랑이와는 또 다른 재미를 준다. 깨고 뭉치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자꾸만 손이 간다.



### 클릭커

'딸깍, 딸깍.' 누를 때마다 들려오는 경쾌한 소리와 손끝으로 튕겨오는 반발력이 묘한 쾌감을 준다. 키보드 스위치를 누르는 듯한 간단한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잠시 머리를 식히기에도 제격. 작고 간편해 책상 위에 두고 수시로 즐기기 좋다.



### 팝잇

볼록한 실리콘 버블을 하나씩 '톡톡' 눌러보자. 버블이 뒤집히며 전해지는 촉감과 소리를 즐기다 한쪽을 모두 누르면 뒤집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단순한 동작이지만 하나씩 채워가는 재미가 있어 마지막 버블까지 누르게 된다.



### 스피너

손끝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움직임을 바라보는 것이 스피너의 묘미다. 중심축을 잡고 날개를 가볍게 튕기면 매끄러운 회전과 함께 미세한 진동이 손끝으로 전해진다. 생각이 복잡할 때 별다른 조작 없이 무심코 돌리는 단순함이 매력이다.

### TREND NEWS




**말랑이에 푹 빠진 어른들, '말랑페스타' 북적**

말랑이의 인기가 오프라인까지 뜨겁게 달궜다.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말랑페스타 인 서울'에는 국내외 인기 말랑이·왁뿌 브랜드 11곳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전예약에 약 6만 명이 몰리고 하루 평균 약 3,000명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평일에도 현장 대기가 1,180팀에 이를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만 14세 이상만 입장할 수 있는 행사로 운영돼, 말랑이가 어린이 완구를 넘어 성인의 스트레스 해소 아이템이자 새로운 취향 소비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줬다.

# IFEZ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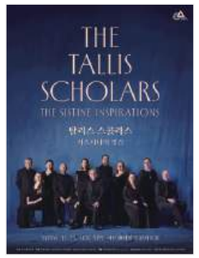
*November-December*

**아트센터인천**
**위치**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22
**문의** 032-453-7700

**트라이보울**
**위치**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0
**문의** 032-832-7996

## 아트센터인천

클래식부터 재즈, 뮤지컬, 무용 등 인천 예술의 중심 '아트센터인천'에서 열리는 주요 공연 일정을 지금 소개한다.




### 탈리스 스콜라스 : 시스티나의 영감

**공연일정** 11월 15일 (일) 15:00
**장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관람시간** 110분 예정
**티켓가격**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 댄싱 클래식 콘서트

**공연일정** 11월 22일 (일) 15:00
**장소** 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
**관람시간** 약 100분 예정
**티켓가격** 전석 3만 원




### 브리즈앙상블의 말러 교향곡 제4번

**공연일정** 11월 28일 (토) 17:30
**장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관람시간** 약 100분
**티켓가격** 전석 5천 원




###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실내악 콘서트 Ⅲ〉

**공연일정** 12월 4일 (금) 19:30
**장소** 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
**관람시간** 약 70분
**티켓가격** 전석 1만 원




### 콘서트 오페라 〈라보엠〉

**공연일정** 12월 22일 (화) 19:30
**장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관람시간** 약 120분
**티켓가격** VIP석 12만 원, R석 8만 원, S석 5만 원




### 크리스마스 영화음악 & 캐롤 콘서트 2026 - 인천

**공연일정** 12월 25일 (금) 15:30/19:00
**장소** 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
**관람시간** 약 90분 예정
**티켓가격** 전석 4만 원

## 트라이보울

공연과 전시,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열리는 복합문화공간 '트라이보울'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자.




### 판소리음악극 〈오버더떼창: 문전본풀이〉

**공연일정** 11월 14일(토) ~11월 15일(일) 14:00
**장소** 트라이보울 2층 공연장
**관람시간** 95분
**티켓가격** 전석 2만 원
**문의** 032-832-7992




### 트라이보울 시리즈 - 제(祭), 타오르는 삶, 99아트컴퍼니

**공연일정** 11월 25일 (수) 19:30
**장소** 트라이보울 2층 공연장
**관람시간** 60분
**티켓가격** 전석 2만 원
**문의** 032-832-7992




### 트라이보울 시리즈 - MELTING 멜팅, 백연 발레프로젝트와이

**공연일정** 12월 12일 (토) 16:00
**장소** 트라이보울 2층 공연장
**관람시간** 60분
**티켓가격** 전석 2만 원
**문의** 032-832-7992

**| 이달의 스페셜 |**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는 한·그리스 수교 65주년을 맞아 바다를 매개로 두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특별한 전시가 펼쳐지고 있다. 고대 그리스 문명을 꽃피운 바다부터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도약을 이끈 그리스와의 만남까지, 바다가 이어온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자.**




### <그리스, 바다가 빚은 위대한 문명>

신화에서 민주주의의 탄생까지, 바다와 함께 발전한 약 6천 년의 고대 그리스 문명을 다양한 유물을 통해 조명하는 국제교류전

**기간** 8월 11일 (화)~12월 6일 (일)
**장소** 국립인천해양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
**전시가격** 무료




### <The First Wave: 조선, 그리스로 가다>

그리스와의 만남을 계기로 세계적인 조선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테마전

**기간** 8월 11일 (화)~12월 6일 (일)
**장소** 국립인천해양박물관 3층 로비
**전시가격** 무료

# Songdo ConvensiA

* MICE 산업?
마이스 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박람 전시회(Events & 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송도컨벤시아

## ISSUE & CALENDAR

**MICE 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는 전시컨벤션센터이다. 국제 회의부터, 인센티브 관광, 각종 전시박람회 등 복합적인 산업을 아우르는 송도의 랜드마크, 송도컨벤시아. 최대 450부스까지 수용 가능한 전시장은 물론 국제 회의장, 행사장이 마련되어 다양한 국내외 컨벤션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MICE 산업의 떠오르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MICE 산업의 떠오르는 메카, 송도컨벤시아의 이달의 이슈부터 행사일정까지 한 눈에 담았다.**

### 2026년 11월 송도컨벤시아 행사일정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1<br>2026 인천 일러스트코리아<br>2026 인천 슈퍼아웃도어 페스티벌<br>웨딩크라우드 웨딩박람회(10월 3차) | 2<br>ICNX 2026(인천 첨단미디어 국제컨퍼런스) | 3<br>해양경찰 외상처치교육(11월) (1) | 4<br>해양경찰 외상처치교육 (11월) (1) | 5<br>인천대 디자인학부 실무자 초청특강 | 6<br>2026 대한슬관절학회 추계심포지엄 | 7<br>웨딩크라우드 웨딩박람회 (11월 1차)<br>라이즈 송도 입학설명회 |
| 8<br>웨딩크라우드 웨딩박람회 (11월 1차)<br>세바여 무료공연 | 9 | 10<br>구급대원 외상처치교육(11월) (1)<br>제5회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한마당<br>2026 대한면역학회 추계학술대회 | 11<br>구급대원 외상처치교육 (11월) (2) | 12 | 13 | 14 |
| 15 | 16 | 17 | 18<br>6th ARPES 워크숍 | 19<br>인천아트쇼 2026 | 20 | 21<br>IDMC 2026 (대한치과재료학회)<br>2026 퍼스트 티 하반기 정기교육 수료식<br>웨딩크라우드 웨딩박람회 (11월 3차) |
| 22<br>IDMC 2026 (대한치과재료학회)<br>인천아트쇼 2026<br>웨딩크라우드 웨딩박람회 (11월 3차)<br>월드패밀리 클럽 쇼 (11월) | 23 | 24 | 25<br>IQT KOREA 2026 | 26<br>KOMISS 2026 | 27<br>인천웨딩박람회(11월) | 28<br>KSMO 경인지회 추계 심포지엄 2026<br>2026 로보텍스 인터내셔널 세계대회 |
| 29<br>인천웨딩박람회(11월)<br>2026 로보텍스 인터내셔널 세계대회 | 30 | | | | | |

※ 행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행사는 수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만나는 글로벌 양자산업의 미래,

## ‘IQT KOREA 2026’

글로벌 양자산업 전시·콘퍼런스 ‘IQT KOREA 2026’이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IQT(Inside Quantum Technology)는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양자 기술과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유해 온 국제 행사로, 아시아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학의 영역을 넘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양자 기술을 주제로 세계 각국의 기업과 스타트업, 투자자, 연구자, 정부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인다. 특히 글로벌 양자산업 관계자들이 송도에 집결하면서 최신 기술과 산업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국제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행사 기간에는 양자컴퓨팅을 비롯해 통신·센싱 등 양자 기술의 최신 동향과 산업 활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첫날 기술 투어와 개막식,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26일과 27일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션 프로그램 등이 이어진다. 특히 스타트업과 연구기관 기반 스핀오프 기업이 기술과 사업 모델을 소개하는 IR·피치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연구자·기업과 글로벌 투자자 간 교류도 이뤄질 예정이다. 세계 양자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살펴보며 송도가 첨단기술의 글로벌 교류 무대로 다시 한번 주목받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청소년 로봇 축제

## ‘2026 로보텍스 인터내셔널 세계대회’ 송도서 개최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로봇 기술과 창의력을 겨루는 ‘2026 로보텍스 인터내셔널 세계대회’가 오는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에스토니아에서 시작된 로보텍스 인터내셔널은 각국 예선을 통과한 학생·청년 팀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적인 청소년 로봇 축제로, 이번 대회에는 각국 예선 통과자와 지도자·관계자 등 5,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로보텍스의 발상지인 에스토니아를 제외하고 세계대회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은 지난 ‘2026 로보컵 인천’, ‘퍼스트 글로벌 챌린지’에 이어 로보텍스 세계대회까지 연이어 개최하며 글로벌 로봇 교류의 무대를 이어간다.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송도컨벤시아 3·4홀에서는 포크레이스, 라인팔로잉, 스모, 풋볼, 드론 레이스 & 미로게임, 문제해결 등 다양한 로봇 경기가 진행된다. 청소년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엔터프리너십 챌린지를 비롯해 로봇·AI·코딩 교육키트·에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EXPO도 함께 열린다. 경기장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세계 각국 청소년들이 펼치는 치열한 로봇 경기를 가까이에서 즐기고 미래 기술의 가능성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핵심만 쏙쏙!

## 일타강사

**정보를 찾는 건 귀찮지만,**
**IFEZ는 알고 싶은 당신에게**
**핵심만 쏙쏙! 일타강사가 알려주는**
**IFEZ의 모든 것!**

### 퀴즈 풀고 선물 받자!

퀴즈의 정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매호 5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마감**
2026년 11월 30일(월)
**보내주실 곳**
ifez2021@naver.com
**참여방법**
연락처, 이름, 주소와 정답을 함께
기재하여 이메일로 전송

※ 당첨자는 정확한 이름, 주소,
연락처를 표기해 보내주신 분에 한 해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청라하늘대교 아래 펼쳐지는 사계절, 야간 '미디어라운지' 운영**

청라하늘대교가 밤이면 새로운 미디어 공간으로 변신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9월 8일부터 청라하늘대교 교량 하부를 활용한 야간 영상 콘텐츠 '미디어라운지(MEDIA LOUNGE)' 운영을 시작했다. 교량 상판 하부의 넓은 공간을 대형 스크린처럼 활용해 영상과 바다, 교량 경관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첫 번째 콘텐츠는 '사계절'로, 봄부터 겨울까지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과 정서를 하나의 영상에 담았다. (중략) 향후에는 계절 변화와 지역 특색을 담은 콘텐츠를 추가해 교량 하부 공간을 활용한 야간 볼거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명칭은 무엇일까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9월 8일부터 청라하늘대교 교량 하부를 활용한
야간 영상 콘텐츠 '○○○○○○' 운영을 시작했다.

① 미디어라운지 ② 미디어영화관 ③ 사계절영상관 ④ 대교라운지

**지난호 당첨자** 정진훈, 김영대, 이종곤, 우승혜, 이지희

추억을 공유하는

## IFEZ 일상 한 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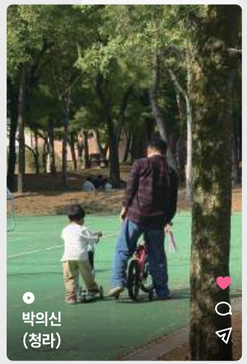
**IFEZ의 일상이 담긴 사진을 짧은 글과 함께 응모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로 <IFEZ 저널>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마감**
2026년 11월 30일(월)
**보내주실 곳**
ifez2021@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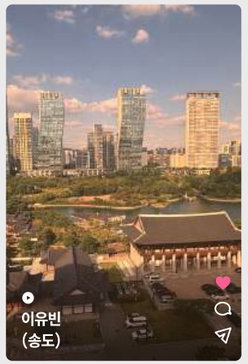
※ 사진파일, 사진설명, 성함,
연락처, 주소를 보내주신 분에
한해 추첨을 진행합니다.
※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리며 사진과
사연은 다음 호에 소개됩니다.




뛰뛰빵빵~! 날씨 좋은 날 자동차를 타고 센트럴파크 산책을 했어요. 주변 풍경도 멋지고 바람도 살랑살랑 산책하기 딱 좋았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곳 청라입니다. 아기가 마음껏 뛰어놀기 좋은 공원! 청라생태공원에서 자전거, 킥보드, RC카 운전까지 재밌게 놀고 왔어요:)




가을 맞이로 센트럴파크 다녀왔는데 날씨도 좋고 풍경도 너무 예뻤어요! 산책하면서 송도 구경하기 딱 좋았고, 사진 찍는 곳마다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가을에 어디 갈지 고민된다면 송도 추천합니다~~

## Opinion Leader's Review on IFEZ vol.131

WRITER



**한나 미들리-로버츠**
녹색기후기금(GCF) 신임
최고운영책임자

**주요이력**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인적자원·조직개발 총괄 전무

EBRD 운영 효율성·효과성
총괄 직무대행

EBRD 총재실장 역임

영국 법무부 전략기획·거버넌스 분야
주요 직책 수행

**IFEZ의 미래를 설계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IFEZ Journal>을 통해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했을까?**
**지난 호에 담긴 IFEZ의 주요 소식들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리뷰해 보았다.**

### IFEZ 저널을 통해 알아가는 새로운 보금자리

안녕하세요. 녹색기후기금(GCF) 신임 최고운영책임자 한나 미들리-로버츠입니다. 지난달 인천 송도에 처음 온 저에게 IFEZ 저널은 새로운 보금자리인 인천을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31호에서 8년 연속 최고 등급인 'S' 등급을 달성한 IFEZ의 소식을 접하고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GCF와 직원들은 인천이 조성한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환경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130호에 소개된 인천광역시와의 식품 기부 캠페인은 국제기구와 주재 도시가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파트너십을 보여주었습니다.

GCF는 131호에 소개된 2026 국제기구 파트너십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인천에 자리한 15개 국제기구의 네트워크가 한층 긴밀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와 IFEZ의 파트너십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GCF와 인천시, 그리고 지역사회 간의 관계를 더욱 깊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IFEZ 저널> 독자 후기 이벤트

## 후기를 부탁해!

**IFEZ 저널에 대한 후기를 남겨주세요!**
**흥미롭게 읽은 기사, 다음 IFEZ 저널에서 보고 싶은 기사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마감** 2026년 11월 30일(월)
**보내주실 곳** ifez2021@naver.com

장영서




이번 호에서 소개한 'IFEZ 가을 독서 여행'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송도에 이렇게 멋진 책 공간들이 숨어 있었다니 새삼 놀라웠어요. 특히 책으로 가득한 높은 서가를 보니 당장이라도 달려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선선한 가을날,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골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가까이 있지만 미처 몰랐던 IFEZ의 매력적인 공간들을 많이 소개해 주세요!

※ IFEZ 저널에 대한 후기, 성함, 연락처, 주소를 보내주신 분에 한해 추첨을 진행합니다.
※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리며 후기는 다음 호에 소개됩니다. 원고는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